

《靈樞》의 서지학적 고찰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I. 緒論	268
II. 本論	269
1. 전해 내려온 과정	269
2. 《靈樞》의 의미	274
3. 《靈樞》의 저작시기	275
III. 結論	279
참고문헌	280

KYOBO
교보문고

《靈樞》의 서지학적 고찰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ABSTRACT

《Yongchu(靈樞)》 is completed as a result of gathering several treatises about oriental medicine in B.C. 3c ~ A.D. 1c, and esteemed as a bible of oriental medicine, especially very much quoted in acupuncture fields. But the name of 《Yongchu(靈樞)》 wasn't in existence at that time. Until A.D. 3c, it had been named after 《Guguen(九卷)》, given it's number of volumes, and since then mainly named after 《Chimgueng(針經)》, given a word of the first volume. After A.D. 6c, under the influence of Taoism(道家), it was titled 《Yonchu(靈樞)》, 《Guhe(九墟)》, 《Gureong(九靈)》 etc. Yonchu(靈樞), guhe(九墟), gureong(九靈) are words which is connected with Taoism(道家). In 1155, Sung Sa(史崧) published 《Yongchu(靈樞)》, which became a textbook of oriental medicine, so other titles disappeared since then. 《Yonchu(靈樞)》, 《Guhe(九墟)》, 《Gureong(九靈)》, 《Guguen(九卷)》, 《Chimgueng(針經)》 are not the same book, but the contents are almost similar, and some letters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textbook, published by Sasung(史崧), had been related to the 《Chimgyeng(針經)》, delivered to North-Song(北宋) dynasty by Jong-Gag Haung (黃宗慤), an envoy of an ancient Korean state(918-1392). So I expect to progress the study of medical exchange about it in the future.

1. 緒論

《黃帝內經》은 과거 2000년 동안 한의학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온 不朽의名著로, 현재에도 한의학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이론적으로 한학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靈樞》는 針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현대 침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서적이다.

《黃帝內經》은 魏晉代の 醫家 皇甫謐(214-282)이 《針經》과 《素問》으로 구분하여 지칭한¹⁾ 이후, 《素問》과 《針經》의 두 서적을 합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후 唐代 王冰과 南宋의 史崧이 《針經》이라는 書名 대신 《靈樞》라는 書名을 사용한 이후에는²⁾, 《靈樞》가 《

1) 山東中醫學院 主編,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中國. 16쪽, '按《七略》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針經》九卷, 《素問》九卷'

黃帝內經》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靈樞》와 동일 계통의 서적으로 표현되는 용어로는 《針經》 이외에도 《九墟》³⁾ 《九卷》 《九靈》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書名이 존재하고, 또한 傳來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점은, 그 책의 정확한 이해에는 필수적으로 서지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靈樞》의 서지학적 측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靈樞》와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九卷》, 《針經》, 《九墟》, 《九靈》 등과의 관계와, 고려에서 현상된 《針經》과 현재 유통되는 《靈樞》와의 상관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靈樞》가 전해 내려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여러 書名들은 결국 南宋 이후 《靈樞》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되는데, 《靈樞》라는 書名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것이다. 《靈樞》의 의미는 당시의 철학적 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역대로 있어온 저작시기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靈樞》가 후대의 僞作이라는 주장과 《靈樞》가 《素問》보다 저작시기가 늦다는 주장은 현대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靈樞》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靈樞》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中國, 19쪽.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5, 中國, 1쪽.
3) 《九墟》는 어떤 책에는 《九虛》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책이다.

II. 本論

1. 전해 내려온 과정

《靈樞》는 《九卷》, 《針經》, 《九墟》, 《九靈》 등의 書名으로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데, 문헌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書名은 《九卷》이다. 張仲景의 《傷寒卒病論》 서문⁴⁾과 皇甫謐의 《甲乙經》 서문⁵⁾에 《九卷》이라는 書名이 나오는데, 《九卷》이라는 이름은 그 권수가 9권이기 때문에 붙여진 임시적인 書名이다.⁶⁾

皇甫謐의 《甲乙經》 서문에는 또한 《九卷》과 같은 서적을 지칭하는 용어로 《針經》이 나온다.⁷⁾ 즉 皇甫謐은 먼저 《黃帝內經》에는 《素問》과 《針經》이 있다고 하고, 다음문장에서 黃帝와 岐伯의 遺事에 《素問》 《九卷》 《明堂孔穴針灸治要》의 세 서적이 있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한 《針經》과 《九卷》은 동일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아마 당시에는 《九卷》과 《針經》을 혼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皇甫謐의 《甲乙經》 서문은 《黃帝內經》이 《素問》과 《針經》, 즉 《九卷》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4) 蔡仁植 著, 《傷寒論譯註》, 高문사, 1985, 한국, 4쪽,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
5) 앞 책, 《針灸甲乙經校釋》, 16쪽, '《素問》論病精微, 《九卷》是原本經脈, 其義深奧'
6)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中國, 77쪽.
7) 앞 책, 《針灸甲乙經校釋》, 16쪽, '按《七略》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針經》九卷, 《素問》九卷, 二十九十八卷, 卽《內經》也. 亦有所亡失, 其論遐遠, 然稱術多而切事少, 有不編次. 比按蒼公傳, 其學皆出于《素問》, 《素問》論病精微, 《九卷》是原本經脈, 其義深奧, 不易覺也. 又有《明堂孔穴針灸治要》, 皆黃帝岐伯遺事也.'

있다. 《針經》이라는 이름은, 현재 전해 내려오는 《靈樞》의 첫 편인 「九鍼十二原」의 첫 문단에 나오는 ‘先立鍼經’의 ‘針經’ 두 글자를 따서 書名으로 삼은 것이다.⁸⁾

《甲乙經》이 나온 이후에는 《針經》이라는 書名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후대 의학자들에게 매우 중시되었다. 唐代的 醫事法令, 692년(孝昭王 元年)의 신라법령 및 1136년(仁宗 14년) 고려법령, 그리고 일본의 701년의 大寶律令, 757년의 天平寶字勅令 등에서는 모두 《鍼經》을 의학 공부의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다.⁹⁾

그러나 1059년¹⁰⁾에 간행된 林億 등의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調經論」新校正注에서는 ‘생각컨대, 지금 《素問》의 注 중에서 《針經》을 인용한 문장들은 대부분 《靈樞》의 문장들이다. 다만 《靈樞》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까닭으로 다 확인할 수 없다.’¹¹⁾라 하였으니, 당시에는 校勘용으로 사용될 《針經》이 없었고, 또한 《靈樞》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北宋 초기에는 《針經》이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高麗史》 卷十 및 《宋史高麗國傳》에 의하면, 1091년 北宋 哲宗은 고려에서 사신으로 왔다 귀국하는 李資義에게 摺本사를 통하여 求書目錄을 적어 주었는데, 그 중에 《黃帝針經》의 書目이 들어 있었고¹²⁾, 1092년 11월 高麗 사신 黃宗懋이 北宋에 《黃帝針經》을 헌상하게 된다.¹³⁾ 또한 北宋 정부에서는 1093년 1월에 이를 간행하게 된다.¹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王應麟¹⁵⁾의 《玉海》¹⁶⁾ 卷63에 의하

8) 앞 책, 《中醫文獻學》, 77쪽.

9) 앞 책, 《中醫文獻學》, 79쪽. 김두중 저,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0, 한국. 65-66쪽, 106쪽, 134쪽, 178쪽. 崔守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중국. 171쪽. 김부식 저, 《삼국사기》 下, 을유문화사, 1996, 한국. 306쪽, 310쪽.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譯註, 《譯註高麗史》 第七(《고려사》권수로는 卷73), 동아대학교출판사, 1971, 한국. 8-9쪽. 고려의 과거제도에 醫業式이 채택된 연도가 《한국의학사》에는 인종 15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어 《中醫文獻學》《朝鮮醫籍通考》에 인종 14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고려사》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인종 14년이 맞다.

10)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서는 1056-1067년 사이에 北宋 정부에서 校正醫書局을 설치하여 林億 등으로 하여금 王冰 注本 《素問》을 교감하게 하였다고 하였고, 錢超塵의 《內經語言研究》에서는 그 연수를 1059년으로 확정하여 말하고 있다. 앞 책, 《中醫文獻學》, 74쪽. 錢超塵, 《內經語言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90, 중국. 18쪽.

11) 郭爾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下卷, 人民衛生出版社, 1992, 중국. 748쪽, ‘按今《素問》注中引《針經》者, 多《靈樞》之文, 但以《靈樞》今不全, 故未得盡知也.’

12)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人民衛生出版社, 1991, 중국. 279쪽. 앞 책, 《한국의학사》, 118쪽. 앞 책, 《역주고려사》 第一, 454쪽, ‘丙午에 李資義 등이 宋으로부터 돌아와 奏하기를, ‘(宋) 帝가 우리나라 서적에 好本이 많음을 듣고 館伴(摺本사)에게 명하여 求書目錄을 써서 주면서 이에 말하기를, 비록 卷帙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傳寫하여 부쳐 오라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求書目錄) … 深師方, 黃帝針經 九卷, 九墟經 九卷, …’

13) 앞 책, 《한국의학사》, 68쪽. 景仁文化社 編, 《二十五史》「宋史」六, 景仁文化社, 1989, 한국. 539쪽, ‘哲宗立, …, 七年, 遣黃宗懋來憲黃帝針經, …’

14) 앞 책, 《中國醫學史》, 279쪽. 앞 책, 《中醫文獻學》, 79쪽, ‘1093년 宋정부는 이러한 《針經》傳本에 근거하여 刊印 頒行하게 된다. (見《宋史哲宗記》, 《宋大詔令集》卷219 및 江少虞氏《宋朝類苑》等書), 앞 책, 《靈樞經校釋》, 9쪽, “《宋史》卷十七 哲宗本紀에는 ‘元祐八年正月庚子, 詔頒高麗所獻《黃帝針經》于天下.’라 하였고, 江少虞의 《皇朝類苑》 卷三十一 藏書之府 二十에는 ‘哲宗時, 臣寮言竊見高麗獻到書內有《黃帝針經》九卷, 據《素問》序稱, 《漢書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素問》與此書各九卷, 乃合本數. 此書久經兵火, 亡失幾盡, 偶存于東夷, 今此來獻, 篇帙具存, 不可不宣布海內, 使學者誦習, 伏望朝廷詳酌, 下尚書工部雕刻印板, 送國子監依例摹印施行, 所貴濟衆之功, 溥及天下. 有旨, 令秘書省選奏通曉醫書官三兩員校對, 及令本省詳定訖, 依所申施行.’이라 하였다.” 앞 책, 《二十五史》「宋史」一, 118쪽.

15) 中文大辭典, 6권, 363쪽, ‘宋 慶元人, 字伯厚, 號深寧, 又號波儀遺民.’

16) 中文大辭典, 6권, 391쪽, ‘二百卷, 附詞學指南四卷. 宋 王應麟 撰. 凡分二十一門, 二百四十餘類, 其文次爲, 天

면, 고려에서 宋으로 보내진 《針經》의 첫 편이 「九鍼十二原」이라는 것이다. 이는 뒤에 다루게 될 현존하는 《靈樞》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針經》은 그 후 金代, 成無己의 《注解傷寒論》(1144년), 《傷寒明理論》(1156년), 劉完素의 《黃帝素問宣明方論》(1182년), 李杲의 《內傷外感辨》(1247년), 《脾胃論》(1249년), 《蘭室秘藏》(李杲 死後發刊), 元代, 王好古의 《此事難知》(1308년), 朱丹溪의 《醫學發明》(1315년), 羅謙甫의 《衛生寶鑑》(1343년)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지만, 南宋 이후에 망실되기 시작하여 金元 시대에는 일부만 보존되고, 明代 이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¹⁷⁾

《靈樞》라는 書名은, 《玉海》 卷63에 唐代 초기의 楊上善이 서문을 쓴 《黃帝靈樞經》 9卷이라는 書目¹⁸⁾으로 문헌학적으로 최초로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사실은 《玉海》 卷63에 의하면, 《黃帝靈樞經》은 첫 편이 「精氣」 편이고, 현존하는 《靈樞》의 첫 편은 「九鍼十二原」이라는 점이다.¹⁹⁾ 이는 《黃帝靈樞經》이 현존하는 《靈樞》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靈樞》를 《素問》과 더불어 《黃帝內經》의 한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王冰이다. 그는 《素問》注本の 서문에서 《黃帝內經》을 《素問》과 《靈樞》로 구분하였²⁰⁾, 또한 注중

에서 《靈樞》를 자주 인용하는데, 그는 注 중에 나오는 또 다른 인용 문헌인 《針經》을 《靈樞》와 동일한 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靈樞》와 《針經》을 동일한 서적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인용한 바 있는 北宋 林億 등의 《素問調經論》新校正 注에서 《靈樞》와 《針經》을 다른 서적으로 구분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특이한 점은 王冰의 《素問》注에 나오는 《靈樞》, 즉 《針經》이 현존하는 《靈樞》와 다르다는 점이다. 王冰 注 중에서 인용된 《靈樞》의 문장과 현존하는 《靈樞》의 문장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차이가 나는 데, 이는 두 서적이 동일계통의 다른 판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²¹⁾

또한 北宋 林億 등의 《素問調經論》新校正 注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靈樞》今不全’이라 한 점이다. 이는 《靈樞》도 《針經》과 마찬가지로 北宋 초기에 이미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점을 1155년 간행된 史崧의 《靈樞經》 서문에 ‘但恨《靈樞》不傳久矣, 世莫能究.’²²⁾라 한 것과 서로 연계하여 보면, 林億 등의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이 간행된 1059년 전후로 《靈樞》가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

文, 律曆, 地理, 帝學, 聖文, 藝文, 詔令, ...’

17) 앞 책, 《中醫文獻學》, 82쪽

18) 앞 책, 《中醫文獻學》, 80쪽

19) 앞 책, 《中醫文獻學》, 80쪽. 앞 책, 《靈樞經校釋》, 9쪽, ‘《黃帝靈樞》九卷, 黃帝 岐伯 雷公 小俞 伯高 問答之語, 隋 楊上善序, 凡八十一篇, 《針經》大抵同, 亦八十一篇. 《針經》以「九鍼十二原」爲首, 《靈樞》以「精氣」爲首, 又間有詳略, 王冰以《針經》爲《靈樞》, 故席延賞云: 《靈樞》之名, 特最後出.’

20) 앞 책, 《黃帝內經素問校釋》 上卷, 19쪽. 班固《漢書》藝文志曰: 《黃帝內經》十八卷. 《素問》卽其經之九卷也, 兼《靈樞》九卷, 乃其數焉.’

21) 앞 책, 《黃帝內經素問校注》 下卷, 748쪽. 新校正云: 詳此注引《針經》曰與「三部九候論」注兩引之, 在彼云《靈樞》, 而此曰《針經》, 則王氏之意指《靈樞》爲《針經》也. 按今《素問》注中引《針經》者, 多《靈樞》之文, 但以《靈樞》今不全, 故未得盡知也.

앞 책, 《中醫文獻學》 79쪽, ‘저자가 王冰 주 중에 나오는 《靈樞》와 《針經》의 인용 문장을 모아 분석한 결과, 王冰이 보았던 《針經》과 당시의 《靈樞》는 완전히 동일한 서적이라는 것과, 王冰이 보았던 《針經》과 현존하는 《靈樞》는 동일계통의 다른 傳本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22) 앞 책, 《靈樞經校釋》, 1쪽.

을 알 수 있다.

당시 《針經》이나 《靈樞》의 훼손은 학문적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실제로南宋 史崧의 《靈樞》 서문에는 이러한 혼란을 《靈樞經》의 간행 동기로 밝히고 있다.²³⁾ 즉 그는 《靈樞經》 간행의 동기로, 《靈樞》가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어, 咳逆과 嘔의 개념과 本輸와 流注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²⁴⁾ 史崧은

23) 앞 책, 《靈樞經校釋》, 1쪽, “昔黃帝作《內經》十八卷, 《靈樞》九卷, 《素問》九卷, 乃其數焉, 世所奉行, 唯《素問》耳. 越人, 得其一二, 而述《難經》, 皇甫謐, 次而爲《甲乙》, 諸家之說, 悉自此始. 其間或有得失, 未可爲後世法, 則謂如《南陽活人書》稱, ‘咳逆者, 嘔也’, 謹按《靈樞經》曰: ‘新穀氣入于胃, 與故寒氣相爭, 故曰: 嘔’, 舉而并之, 則理可斷矣; 又如《難經》第六十五篇, 是越人標指《靈樞》本輸之大略, 世或以爲流注, 謹按《靈樞經》曰: ‘所言節者, 神氣之所游行出入也, 非皮肉筋骨也’, 又曰: ‘神氣者, 正氣也. 神氣之所游行出入者, 流注也; 井榮輸經合者, 本輸也’, 舉而并之, 則知相去不啻天壤之異, 但恨《靈樞》不傳久矣, 世莫能究. (옛날에 黃帝께서 《內經》 18권을 지으시니, 《靈樞》가 9권이고 《素問》이 9권이어서 바로 그 18이라는 숫자에 맞는데, 세상에서 경전으로 받들어 유통되는 것은 오직 《素問》뿐이다. 秦越 사람이 그 하나 둘을 얻어서 《難經》을 저술하셨고, 皇甫謐이 순서를 따라 다시 엮어 《甲乙》이라 하였으니, 모든 醫家의說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이에 혹 보태지거나 빠진 것이 있어 가히 후세의 法이 될 수 없게 되었으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南陽活人書》에 ‘咳逆이 嘔이다.’라 하였는데, 삼가 생각건대 《靈樞經》에는 ‘새로 穀氣가 胃로 들어가 그전에 있던 寒氣와 더불어 서로 다투니 그러므로 嘔(뱉국질)을 한다.’라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여 나란히 한다면 이치상으로 가히 틀린 점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예를 들면 《難經》 제65편은 秦越人께서 《靈樞》 本輸의 대략을 설명하는 것이거늘 세상에서 혹 流注의 내용으로 여기고 있으니, 삼가 생각건대 《靈樞經》에서는 ‘말한 바 節이라는 것은 神氣가 流行出入하는 것이요 皮肉筋骨은 아니다’라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神氣는 正氣니 神氣가 游行出入하는 곳은 流注이며, 井榮輸經合은 本輸이다.’라 하였으니 이러한 내용을 열거하여 나란히 한다면 그 내용이 서로 떨어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靈樞》가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지라 세상에 서 능히 연구할 수 없었음을 한탄할 따름이다.)

이러한 학문적 혼란을 정돈하고자, 家藏本 《靈樞經》에 校正을 加하고, 音釋을 增修하여, 1155년 24권본 《靈樞經》을 간행하게 된다. 그후 史崧 本 《靈樞經》은 한의학에서 기본 텍스트로 채택되어 현존하는 《靈樞經》의 祖本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史崧이 刊行한 《靈樞經》과 고려에서 北宋으로 전해진 《針經》의 관계이다. 앞에서도 약간 다루었지만, 당시 王冰이 보았던 《靈樞經》과 楊上善이 서문을 썼다는 《黃帝靈樞經》은 모두 현재의 《靈樞經》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존하는 《靈樞經》은 史崧이 1155년 간행한 것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 첫 편이 「九鍼十二原」으로 되어 있다. 1092년 고려에서 北宋에 전해진 《針經》도 또한 첫 편이 「九鍼十二原」이다. 《玉海》 卷63에 의하면 당시 유행하던 《靈樞經》의 첫 편은 「精氣」편으로 볼 수 있으나, 史崧 本 《靈樞經》의 첫 편이 「九鍼十二原」이라는 것은 고려에서 전해진 《針經》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²⁵⁾ 최근 《內經語言研究》를 저술한

24) 本輸와 流注의 개념은 현재에도 혼동되고 있는 것으로 《靈樞經》 「本輸」 2편의 내용은 「經脈」 10편에서 經脈 流注를 다룬 것과 많이 다르다. 현재에는 「本輸」 2편의 내용이 「經脈」 10편의 내용에 흡수되어 있는데, 이는 《難經》의 학설과 많이 일치한다. 本輸와 流注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이유는, 史崧 이전의 시기에는 아마 史崧이 지적한대로 《靈樞經》 傳本 과정의 문제인 듯하고, 史崧의 《靈樞經》이 나온 후에도 本輸가 流注와 다른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마 針灸學의 이론체계가 대체적으로 《靈樞經》가 많이 훼손된 11세기초에 주로 《難經》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고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5) 앞 책, 《靈樞經校釋》, 9-10쪽, “현재 통용되는 《靈樞經》은南宋 史崧이 1155년 간행한 ‘家藏舊本’이다. 이 본은 결국 고려에서 전해진 《針經》의 이름을 《靈樞經》으로 바꾸어 전해 내려온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傳承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확인할 수 없다. 《玉海》에서 中興館開書目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에 의하면, 史崧이 간행한 《靈樞經》은 《針經》에서의

錢超塵은 史崧의 家藏本이 바로 고려에서 전해진 것이 哲宗 8년에 간행된 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는 그 근거로 「邪氣藏府病形」篇에 나오는 校語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제일 뒷 문단의 원문 가운데에 끼어 있는 '一作游'는 바로 元佑 8년 당시의 校正者에 의하여 삽입된 것으로 史崧의 校語가 每篇의 뒤에 일률적으로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였다.²⁶⁾

《九墟》는 《宋志》에 처음 나타나고, 北宋의 林億 등이 《素問》과 《甲乙經》 등의 古醫書를 校正할 때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高麗史》9권에 의하면 1091년까지는 완전한 모습으로 보전된 듯하나,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²⁷⁾

《九靈》은 《舊唐書經籍志》에 '《黃帝九靈經》十二卷 靈寶注'라 하여 처음 나타난다.²⁸⁾ 靈寶라는 인물이 《道藏·洞神部》《抱朴子》《醫史》 등에도 나타나므로, 그 생존 연대는 秦代 이전일 것으로 추측되나, 《九靈》이라는 書名이 唐代에 이르러 처음 나타나고, 또한 '靈寶'라는 호가 道家 계통의 학자들에게는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唐代에 살았던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林

億 등은 唐代 王冰이 《九靈》을 《靈樞》로 改稱한 것이라 하였는데, 北宋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²⁹⁾

13세기 초에 이르면, 史崧이 간행한 《靈樞》를 제외한 다른 판본계통의 책들은 전부 사라지고, 史崧 본 《靈樞》만이 남게 된다. 그것은 1186년 劉完素가 간행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인용된 《靈樞》의 문장 중에 史崧 본 《靈樞》와 일치하지 않는 조문이 있으나, 1249년 간행된 李杲의 《脾胃論》, 元代 王好古, 朱丹溪 등의 저작에는 모두 史崧 본 《靈樞》를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³⁰⁾ 확인된다.

史崧 본 《靈樞》가 전해 내려온 과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³¹⁾

1) 24권, 원문본

史崧이 24권으로 간행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문만 있고, 各卷末에 音釋이 붙어 있는 본이다.

明代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宋刊本에 근거하여 《新刊黃帝內經靈樞》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 있으며, 이 밖에도 嘉靖(1522- 1566) 刊本, 1584년에 나온 周曰氏 鏤谷書林刊本(《素問》合刊) 등이 있다. 清代에는 1852년 錢熙祚氏 守山閣 校刊本, 1864년 上海 隆文書局 石印本이 있는데, 錢氏의 본은 顧觀光氏의 '校勘記'가 있으며, 刻印이 비교적 정교하다. 이 본은 1928년 中國學會에서 영인하였다.

2) 12권 원문본

史崧의 24권본을 합병하여 12권으로 하였으나, 내용은 같다.

編의 排列를 따르고, 원래 《靈樞經》의 編의 排列는 아닌 것이다. 北宋 元佑 八年(1093년)에 고려에서 전해진 《針經》을 간행한 이래로, 史崧이 '家藏舊本'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겨우 60여년의 시간이 있었고, 編의 排列를 근거하여 볼 때, 史崧이 간행한 《靈樞經》이 바로 당시 고려에서 전해진 《針經》의 傳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中興館圖書目에서 말하고 있는 「精氣」篇이 첫 편인 《靈樞經》은 流傳 중에 망실되었거나, 뒷 시대인에 의하여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 책, 《內經語言研究》, 18쪽.

26) 앞 책, 《內經語言研究》, 21쪽. 앞 책, 《靈樞經校釋》, 117쪽, '中氣穴則針染一作游于巷'

27) 앞 책, 《中醫文獻學》, 79쪽. 앞 책, 《靈樞經校釋》, 10쪽.

28) 林億 등은 《九靈》이라는 서명이 《隋書經籍志》에도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錢超塵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內經語言研究》 16쪽 참조.

29) 앞 책, 《中醫文獻學》, 80쪽

30) 앞 책, 《中醫文獻學》, 82쪽

31) 이후의 《靈樞》가 전해 내려온 과정은 朴贊國 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경희대학교출판국, 1998년, 한국) 29-31쪽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元代에는 1339년의 胡氏 古林書堂 刊本(책이름은 《新刊黃帝內經靈樞》), 1340년 刊本(책이름은 《新刊黃帝內經靈樞集注》로 되어 있으나, 注는 없음), 책이름이 《黃帝素問靈樞集注》로 되어 있는 본(실제로는 《素問》은 없고, 뒤의 《道藏》本과 같음) 등이 있다.

明代에는 1474년의 熊氏 種德堂 刊本, 1525년의 歷城田經氏 校刊本, 1522- 1566년의 趙府居敬堂 刊本, 吳佛氏 刊本, 1601년의 吳勉學氏 《醫統正脈》本 등이 있다.

清代에는 1849년의 宋仁甫 刊本(《素問》과 합본), 1877년의 浙江書局 刊 《二十二子》本, 1884년 京口 文成堂 刊本, 1897년 新化三味書屋 刊 《二十二子》本, 1907년 京師醫局 刊 《醫統正脈》本, 黃以周氏 刊本, 1893년 鴻文書局 《二十五子匯編》本, 1896년 上海 圖書集成本, 1897년 上海 文瑞樓本, 1901년 浙江書局 《二十二子》本, 《四庫全書》本, 朝鮮 刊 木活字 원문본(책이름이 《新刊黃帝內經靈樞集注》이며, 현재 日本 宮內廳 소장) 등이 있다.

3) 23권본

24권본에 권수만 조정한 것으로 내용에는 다른 점이 없다. 明代에 《道藏》 중에 편입되었다. 책이름은 《黃帝素問靈樞集注》로 되어 있으나, 《素問》 및 集注는 없다.

4) 9권본

책이름이 《黃帝內經靈樞》인 것으로 明代 혹은 清代로 추측되는 본이 있고, 清代에 田伯良씨가 輯한 《黃帝內經靈樞原文》이 있다. 일본에는 田中清左衛門 刊本, 風月庄左衛門 刊本, 1726년 刊本 등이 있다.

5) 注本

16세기 이후에 《靈樞》전문에 대하여 注를 단 본이 출현하는데, 이 본들은 모두 史崧 本の 편차

와 원문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1586년 馬蒔씨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9卷, 1670년 張志聰씨의 《黃帝內經靈樞集注》9권, 1795년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靈樞》, 1896년 周學海의 《靈樞評文》12卷, 1910년 《張馬合注素問靈樞》 중의 《靈樞經》10卷, 1936년 蔡陸山 集注 《中國醫學匯海靈樞經》 등이 있고, 이밖에 《靈樞》《素問》의 내용을 혼합하여 분류 개편한 것으로 明代 張介賓의 《類經》이 있다.

史崧 本 《靈樞》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전해 내려왔으나, 현재에는 당시의 원본이 보존되고 있지 않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339년 元代 胡氏 古林書堂 刊本이다.

2. 《靈樞》의 의미

《九卷》, 《針經》, 《九靈》, 《九墟》, 《靈樞》 등의 書名에 대하여 丹波元簡은 《靈樞》, 《九靈》, 《九墟》는 道家 계통의 학자들이 칭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였는데³²⁾,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靈樞》가 출현하기 이전의 명칭인 《

32) 丹波元簡 編,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중국. 536쪽. '考德等《素問》《甲乙》等 注所引《九墟》文, 今并見本經中, 乃知《九墟》者, 乃此經之別本, 僅存五卷, 非其全帙也. 要之曰《靈樞》, 曰《九靈》, 曰《九墟》, 出黃冠所稱, 而《九卷》《針經》, 乃爲舊題也. (생각컨대, 林億 등이 《素問》《甲乙》등에 注를 달면서 《九墟》의 문장을 인용하였는데, 지금 本經(史崧의 《靈樞經》)을 보니, 비로소 《九墟》가 바로 이 史崧 本 《靈樞經》의 別本임을 알겠다. 겨우 다섯 권만 존재하니, 그 全帙은 아니다. 요컨대, 《靈樞》라 하고 《九靈》이라 하고 《九墟》라 한 것은 道家 계통의 학자들이 칭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고, 《九卷》《針經》은 바로 옛날 책이름인 것이다)'

九卷》은 卷數가 9인 것에 착안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針經》은 첫 편인 「九鍼十二原」에 나오는 '先立針經'의 '針經' 두 글자를 따서 書名으로 한 것이므로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靈樞》《九靈》《九墟》 등은 道家의 색채를 띤 書名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林億 등이 道家의 영향을 많이 받은 王冰³³⁾이 《九靈》을 《靈樞》로 개칭하였다고 한 것³⁴⁾이나, 또는 唐代에 道家의 사상이 유행하여 道家 系統의 서적 이름에 '靈', '寶', '神', '樞' 등의 글자를 많이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을³⁵⁾ 고려하여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경우는 그 시대의 사상적 영향이 書名에 영향을 끼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靈樞》의 의미에 대하여, 馬蒔는 樞에 대하여 門戶의 의미로 문을 여는 것이 그것에 매어 있다고 하였고, 靈에 대하여는 지극히 신령스럽고 지극히 현묘함을 의미한다³⁶⁾고 하였으며, 張介賓은 '神靈之樞要'를 靈樞라 한다³⁷⁾고 하였다. 張介賓의 注에 대하여, 《靈樞經白話解》에서는 《大戴禮》에서 '陽之精氣曰神, 陰之精氣曰靈'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樞要에 대하여도, 樞紐와 같은 뜻으로 요점을 잡고 있는 곳을 樞紐라 한다고 하였다.³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靈樞》는 唐代 王冰이 처음 사용한 書名으로서, 道家의 영향

을 받아 作名된 것이며, 또한 그 의미는 '神靈스런 지도리'로, 마치 문의 지도리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만 문짝을 조절하여 출입을 통제하듯이, 이 서적이 의학의 모든 내용을 陰陽五行說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지만, 그 응용은 의학 각 방면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으로, 이 서적이 가진 의학적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靈樞》의 저작시기

《靈樞》의 저작시기에 대하여는 《靈樞》가 후대의 僞作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靈樞》가 《素問》보다 문장이 淺短하여 그 저작시기가 《素問》보다 늦다는 주장이 있다. 그에 대한 찬반의 여러 학설은 다음과 같다.

宋代 晁公武의 《郡齋讀書志後志》 卷二 《靈樞經》조문에서는 "王冰은 이 책(《靈樞》)이 바로 《漢書》에 나오는 《黃帝內經》18권 중의 九卷이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好事家가 皇甫謐이 편찬한 《內經》(《甲乙經》을 말함)과 《史記》「倉公論」 중에서 뽑아 만들고, 이름지어 古書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王冰謂此書即《漢書》《黃帝內經》十八卷之九也。或謂好事者于皇甫謐所集《內經》, 《倉公論》中抄出之, 名爲古書也。未知孰是。)"³⁹⁾라 하여 후대의 僞作임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元代的 呂復은 '《內經靈樞》는 漢 隋 唐의 《藝文志》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 《隋藝文志》에는 《針經》 九卷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唐藝文志》에는 靈寶注 및 《黃帝九靈經》 12卷이 있는데, 어떤 사람(林億 등을 말함)은

33) 앞 책, 《黃帝內經素問校釋》, 24쪽, 序文 중에 '冰弱齡慕道'라는 표현이 보임.

34) 앞 책, 《中醫文獻學》, 80쪽.

35) 앞 책, 《內經語言研究》, 17쪽.

36) 馬蒔 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4년, 중국, 1쪽, '謂之靈樞者, 正以樞爲門戶, 開辟所系, 而靈乃至神至玄之稱'

37)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94, 중국, 상권 1쪽, '神靈之樞要, 是謂靈樞'

38)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 중국, 1쪽.

39) 龍伯堅 著, 《黃帝內經概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중국, 21쪽.

王冰이 《九靈》을 이름을 바꿔 《靈樞》라 하였고, 또 《九靈》이 針에 대하여 자세하므로 皇甫謐이 《針經》이라 이름 붙인 것이니, 바로 《隋志》에 나오는 《針經》九卷이라고 하였다. 만약 한 책인데, 이름이 두 개라면, 《唐志》에 별도로 《針經》12권이 나오는 것과 맞지 않는다.(呂復曰:《內經靈樞》,漢 隋 唐《藝文志》,皆不錄.隋有《針經》九卷,唐有靈寶注,及《黃帝九靈經》十二卷,而或謂王冰以《九靈》,更名爲《靈樞》,又謂《九靈》尤詳於針,故皇甫謐名之爲《針經》,卽《隋志》《針經》九卷.苟一書而二名,不應《唐志》別出《針經》十二卷也.)⁴⁰⁾라 하여, 《九靈》과 《針經》은 다른 책이므로 林億 등이 《靈樞》와 《針經》과 《九靈》을 같은 종류의 책으로 본 것을 부정하고, 따라서 《靈樞》는 僞作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清代의 杭世駿의 《道古堂集》卷二六 《靈樞經跋》에서는 “王冰은 《九靈》을 《靈樞》라 하였는데, 《靈樞》라는 이름을 무엇에 근본하여 지었는지 알 수 없으니, 즉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여 《素問》의 예를 본뜬 것이다. 내가 보건대, 그 문장의 뜻이 천박하고 짧아, 《素問》 岐伯의 書와는 종류가 다르다. 또한 《素問》에서 몰래 취하여 과장하여 꾸민 것 같으니, 그 책이 王冰이 僞托한 것임을 가히 알 수 있다.(王冰以《九靈》爲《靈樞》.《靈樞》之名,不知其何所本,卽用之以法《素問》.余見其文義淺短,與《素問》岐伯之書不類,又似竊取《素問》之書而鋪張之,其爲王冰所僞托也可知.)⁴¹⁾라 하여, 《靈樞》의 내용이 淺短하고, 《靈樞》가 王冰의 僞托이라 주장하고 있다.

40)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중국. 42쪽.

41) 앞 책, 《黃帝內經概論》, 21쪽.

丹波元胤은 ‘그러나 《素問》의 각 편은 文字가 대부분 심오하고, 《靈樞》는 즉 심오한 편이 數篇에 불과하다.(按先子曰:…然《素問》各篇,文字多深奧,《靈樞》則不過數篇.)⁴²⁾고 하였고, 또 ‘《甲乙經》이란 책은 《素問》, 《針經》, 《明堂孔穴針灸治要》의 3가지 책에서 撰集한 것이니, 《素問》《明堂》의 문장이 아닌 것은 바로 《針經》의 문장인데, 다 《靈樞》에 실려있으니, 즉 실제로 이 《靈樞》가 옛날의 《針經》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그 문장이 약간 다른 것은 옮겨 쓸 때의 잘못일 뿐이다. 예를 들면 十二經水는 《甲乙經》에도 또한 있다. 만약 杭世駿의 말에 근거한다면, 《甲乙經》도 또한 唐人의 僞托이 될 것이다. 대개 《素問》《靈樞》는 모두 秦漢人이 지은 것이다.(《甲乙》之書,撰集《素問》《針經》《明堂孔穴針灸治要》三部,《素問》《明堂》之外,乃《針經》文,悉具于《靈樞》,則實是爲古之《針經》無疑矣.其文有少異者,傳寫之差誤耳.如十二經水,《甲乙》亦有之.若據杭言,《甲乙》亦爲唐人之僞托乎!蓋《素問》《靈樞》并秦漢人所撰.)⁴³⁾라 하여, 杭世駿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靈樞》의 내용이 《素問》처럼 심오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丹波元胤은 馬蒔가 ‘대저 《素問》에서 인용된 바의 經의 말은 《靈樞》에서 나온 것이 많으니, 《靈樞》가 먼저 나오고, 《素問》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라 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馬蒔의 說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대개 《靈樞》의 문장은 淺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내용 중에는 《素問》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다. … 또한 《素問》이란 책은 그 문장이 우아하고 옛스러우며, 그 뜻이 심오한지라, 결코 《靈樞》가 미칠 바 아

42) 앞 책, 《中國醫籍考》, 44쪽

43) 앞 책, 《中國醫籍考》, 45쪽.

니니, 즉 《靈樞》가 《素問》보다 늦게 나왔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又按馬仲化曰: '大抵《素問》所引經言, 多出《靈樞》者, 是《靈樞》爲先, 《素問》爲後', 此說不足信焉. 蓋《靈樞》之文, 淺薄易解, 而所載有《素問》中不言及者, …, 且夫《素問》之書, 其文雅古, 其旨深奧, 決非《靈樞》之所及, 則其爲晚出, 可以徵焉.)⁴⁴⁾라 하여, 《靈樞》가 《素問》보다 나중에 나왔다는 설을 제기하게 된다.

清代 陸心源은 《義順堂題跋》 卷七 《靈樞經跋》에서 '《靈樞》는 곧 《針經》으로 《漢書藝文志》, 皇甫謐 《甲乙經》自序에 보이니, 절대 나중에 나온 것은 아니다.(《靈樞》, 卽《針經》, 見于《漢藝文志》, 皇甫謐《甲乙經自序》, 并非後出)⁴⁵⁾라 하여, 《靈樞》가 《素問》보다 후대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 子部 醫家類 《靈樞經》條에서 '대저 《靈樞》는 《針經》이니, 《玉海》의 中興書目에 분명한 문장이 갖추어져 있고, 林億 등도 異說이 없으니, 어찌 僞撰이라고 기만할 수 있겠는가? … 이 서적은 역대로 《難經》《甲乙經》《脈經》《外臺秘要》 등의 서적이 내용을 채록받은 것으로, 홀리 전해짐이 오랜 옛날부터이고, 멀리 그러한 단서가 있거늘, 杭氏가 문장 내용이 淺短하다고 험뜯었으니, 잘못된 것이다. 《四庫提要》에서는 呂氏 杭氏의 說에 현혹되고 다시 깊이 고찰하지 아니하여, 함부로 그 책이 僞書라 하였으니, 또한 잘못된 것이다.(夫《靈樞》, 卽《針經》, 中興書目具有明文, 林億亦無異說, 惡得詆爲僞撰乎? … 此書歷爲《難經》《甲乙經》《脈經》《外臺秘要》所采, 流傳自古, 遠有端緒, 而杭氏以文義淺短詆之, 過矣. 《提要》惑

于呂氏, 杭氏之言, 不復深考, 遽以其書爲僞, 又過矣.)⁴⁶⁾라 하여, 《靈樞》의 내용이 淺短하지 않고, 또한 僞作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黃以周는 《徽季文鈔》文二 《黃帝內經九卷集注》 序에서 "어떤 사람은 《素問》의 뜻이 깊고, 《九卷》의 뜻이 얕다고 말한다. 대저 《內經》十八卷은 醫家가 모은 것으로, 본래 한 사람의 손으로 저작된 것은 아니다. 그 뜻의 깊음을 논하자면, 《九卷》의 古奧함은 비록 《素問》이라도 더할 수는 없으며, 그 淺하여 가히 비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素問》 또한 《九卷》보다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九卷》은 《素問》과 더불어 함께 《內經》에 속한다. 《素問通評虛實論》 중에는 黃帝가 骨度 脈度 筋度에 대하여 질문한 부분이 있고 대답은 없는데, 王冰은 이 답변이 《靈樞》 中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문장은 바로 《素問》의 錯簡이다. 皇甫謐은 《內經》十八卷이 바로 《素問》《靈樞》라고 하였으니, 가히 믿을 만하고,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素問針害篇》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장이 《九卷》에 나온다고 《新校正》에 이미 말하였고, 또한 《素問方盛衰論》에서 '合五診, 調陰陽은 이미 「經脈」에 있다.'라 하였는데, 「經脈」은 즉 《九卷》의 篇目으로, 王冰의 注에서도 말하였으니, 즉 《素問》의 문장은 또한 《九卷》의 뒤에 나온 것이다. 《素問》은 이 經(《靈樞》)을 宗으로 하였으니, 이 經이 《素問》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或又謂《素問》義深, 《九卷》義淺. 夫《內經》十八卷, 乃醫家所集, 本非出一人之手. 論其義之深, 《九卷》之古奧, 雖《素問》不能過, 其淺而可鄙者, 《素問》亦何減于《九卷》? 《九卷》之與《素問》, 同屬《內經》. 《素問通評虛實論》中有黃帝 骨度 脈度 筋度之問, 而無對話,

44) 앞 책, 《中國醫籍考》, 45쪽.

45) 앞 책, 《黃帝內經概論》, 21쪽.

46) 앞 책, 《黃帝內經概論》, 22쪽.

王注以爲具在《靈樞》中，此文乃彼經之錯簡，皇甫謐謂《內經》十八卷，卽此二書，可謂信而有徵。《素問鍼解篇》之所解，其文出于《九卷》，《新校正》已言之，又「方盛衰論」言，「合五診，調陰陽，已在「經脈」，「經脈」卽《九卷》之篇目，王冰亦言之，則《素問》之文，且有出于《九卷》之後矣。《素問》宗此經，而謂此經不逮《素問》，可乎？」⁴⁷⁾라 하여，《素問》과 《靈樞》의 문장이나 내용에 淺短 古奧의 차이가 없고, 또한 《素問》에 《靈樞》를 인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靈樞》가 《素問》보다 먼저 저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을 정리하여 보면, 宋代 晁公武와 元代의 呂復은 《靈樞》가 후대의 僞作임을 의심하고 있고, 또한 清代의 杭世駿은 《靈樞》의 내용이 淺短하고, 《靈樞》가 王冰의 僞托이라 주장하고 있다.

丹波元簡은 杭世駿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靈樞》의 내용이 《素問》처럼 심오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馬蒔는 《靈樞》가 《素問》보다 먼저 저작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丹波元胤은 《靈樞》가 《素問》보다 나중에 나왔다는 설을 제기하였다.

清代 陸心源은 《靈樞》가 《素問》보다 후대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한 余嘉錫은 《靈樞》의 내용이 淺短하지 않고, 또한 僞作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黃以周는 《素問》과 《靈樞》의 문장이나 내용에 淺短 古奧의 차이가 없고, 또한 《素問》에 《靈樞》를 인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靈樞》가 《素問》보다 먼저 저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문헌학적 측면에서는 《靈樞》가 비록 唐代 王冰의 서적에서 처음 보이긴 하지만, 같

은 계통의 서적인 《九卷》, 《針經》 등은 이미 東漢, 魏晉 시기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저작시기는 적어도 東漢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丹波元簡, 余嘉錫 등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나 용어, 고고학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그 저작시기를 어느 한 시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저작 시기를 추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41편인 「陰陽繫日月」篇에서는 「寅者, 正月之生陽也」라 하였는데, 寅月을 正月로 정한 것은 漢 武帝 太初 元年(B.C. 104년)이므로⁴⁸⁾ 이 부분은 이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 77篇인 「九宮八篇」과 제 79篇인 「歲露論」에서 논의되는 太一이 宮을 옮기는 내용은 《易緯乾鑿度》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니, 이 두 편은 東漢시대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⁴⁹⁾

셋째, 1973년 長沙 馬王堆 3號 漢墓에서 漢 文帝 12년에(B.C. 168) 매장된 帛書 중 《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이 출토되었는데, 이 책을 《靈樞》 「經脈」과 비교하여 보면, 脈은 있는데 穴은 없으며, 또한 五行과의 연관성도 없고, 비록 藏府와 脈이 일부분 연결되지만, 12經脈이 12藏에 연결된다는 개념은 없으며, 또한 四肢와 內藏이 經脈을 통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훨씬 원시적이라 할 수 있다. 長沙 馬王堆에 매장되어 있던 帛書가 반드시 그 당시의 의학 내용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의학 지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靈樞》 「經脈」의 내용은 적어도 이 시기 즉 B.C 168년

48) 寅月을 正月로 정하는 曆法은 이른바 人統이라는 것으로, 夏 시기에도 사용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漢 武帝 太初 元年의 시기를 선택하였다.

49) 앞 책, 《黃帝內經概論》, 23쪽, 「《易緯乾鑿度》卷下: 故太一取其數以行九宮。」

47) 앞 책, 《黃帝內經概論》, 22쪽.

보다 후에 나온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⁵⁰⁾

넷째, 1972년 甘肅 武威 漢墓에서, 東漢 초기의 醫藥簡牘이 출토되었는데, 거기에 기술된 針刺 治法을 《靈樞》의 針刺 治法과 비교하여 보면, 武威 漢墓의 簡牘에서는 '病者呼四五十, 乃出鍼, 留鍼百二十息, 乃出鍼'이라하여 시간의 표시가 구체적이는데, 《靈樞》에서는 '深內而久留之', 혹은 '靜以久留'라 하여, 武威 漢墓의 簡牘에 비하여 자세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武威 漢墓의 簡牘은 《靈樞》의 유관 내용이 지어진 시기보다 나중에 나온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⁵¹⁾

다섯째, 1977년 安徽 阜陽 雙古堆 西漢 汝陰侯墓에서 고대 陰陽五行으로 점치던 도구인 '六壬栻盤'과 '太乙九宮占盤'이 출토되었는데, '六壬栻盤'에 기재된 문자 및 그 배열 상태가 《靈樞衛氣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며, '太乙九宮占盤'의 九宮名稱과 各宮節氣日數는 《靈樞九宮八風》內의 圖解와 서로 일치한다. 이는 '六壬栻盤'과 '太乙九宮占盤'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史記龜策別傳》에 의하면, 春秋시대 宋 元公 때에 日月星辰의 방위를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靈樞》「九宮八風」과 「衛氣行」의 유관 내용이 지어진 시기를 春秋시대 宋 元公 시기의 이후로 추측할 수 있다.⁵²⁾

여섯째, 《靈樞》에 나오는 陰陽五行學說은 그 연원이 《書經》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만, 기원전 340-260년에 생존했던 鄒衍에 의하여 발전 정리되고 그 이후 성행하였기 때문에 《靈樞》의 陰陽五行學說은 그 이후에 저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黃以周의 注에서 보듯이 어떤 부분은 《素問》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저작된 것도 있고,

혹은 《素問》과 같은 내용이 서로 錯簡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素問》과 마찬가지로 《靈樞》도 어느 한 사람 한 시기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靈樞》의 내용 중에서 이른 것은 春秋戰國시기의 저작으로, 늦은 것은 西漢 東漢시기의 저작으로 볼 수 있으니, 《靈樞》의 저작시기는 대략 B.C. 3세기에서 A.D. 1세기까지라고 볼 수 있다.⁵³⁾

III. 結論

《靈樞》는 春秋戰國時期에서 東漢時期까지, 즉 B.C. 3세기에서 A.D. 1세기까지의 각종 의학 저작이 습합된 서적으로, 그 의미는 마치 문의 지도리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신령스럽게 문짝을 조절하여 출입을 통제하듯이, 이 서적이 의학의 모든 내용을 음양오행학설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지만, 그 응용은 의학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靈樞》는 東漢 魏晉時期에는 卷數가 9권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九卷》으로 불렸으며, 魏晉時期 이후에는 首篇인 「九鍼十二原」에 나오는 '先立針經'의 '針經' 두 글자를 따서, 주로 《針經》으로 불렸다.

隋唐時期에는 道家의 영향으로 《九墟》《九靈》《靈樞》 등의 書名이 등장하였고, 南宋時期에 史崧의 《靈樞》가 간행된 뒤로는 史崧本 《靈樞》가 의학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채택되면서, 다른 書名은 없어지고 《靈樞》라는 書名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靈樞》《九墟》《九靈》《針經》《九卷》 등은 대체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

50) 앞 책, 《懸吐黃帝內經講義》, 21쪽.

51) 앞 책, 《懸吐黃帝內經講義》, 21쪽.

52) 앞 책, 《懸吐黃帝內經講義》, 21-22쪽.

53) 앞 책, 《黃帝內經概論》, 23쪽.

篇次나 문자상에 차이가 있는 동일계통의 다른 판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史崧本 《靈樞》는 1092년 고려 사신 황중각이 北宋 정부에 헌상한 《針經》을 祖本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의학교류사적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1. 山東中醫學院 主編,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중국.
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중국.
3.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5, 중국.
4. 蔡仁植 著, 《傷寒論譯詮》, 고문사, 1985, 한국.
5.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중국.
6. 김두중 著,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0, 한국.
7. 崔守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중국.
8.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譯註, 《譯註高麗史》, 동아대학교출판사, 1971, 한국.
9. 景仁文化社 編, 《二十五史》「宋史」, 景仁文化社, 1989, 한국.
10. 김부식 著,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한국.
11. 錢超塵 著, 《內經語言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90, 중국.
12. 郭鶴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중국.
13.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人民衛生出版社, 1991, 중국.
14. 박찬국 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 경희대학교출판국, 1998, 한국.
15. 丹波元簡 編,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중국(일본 서적을 중국에서 출판함).
16. 馬蒔 撰, 《黃帝內經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4, 중국.
17.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94, 중국.
18.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 중국.
19. 龍伯堅 著, 《黃帝內經概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중국.
20.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중국.